

## 교육소비자에서 교육주체로: '새로운' 공교육 주체에 대한 담론화\*

나윤경(연세대학교, 부교수)†

### 요약

본 논문은 서울시 교육청이 공교육 정상화 방안으로 '일반고 전성시대'를 표방하며 2015년 서울시 일반 고등학교 학생 40명을 대상으로 7개월 간 실행한 <오디세이 학교>에 대한 참여관찰 연구의 일부이다. 연구과정 중 <오디세이 학교> 학생의 부모가 자녀의 입학지원을 위해 작성한 보호자 의견서와 이들과의 인터뷰에서 일반적으로 '교육열'의 대명사로 불리던 한국의 '학'부모 지형에 변화가 생겼음이 감지되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변화를 학부모들이 교육 '소비자'에서 교육 주체로 새롭게 구성된 현상으로 의미화하고자 한다. 이 변화가 대안교육 현장이 아니라 일반 공교육 현장에서 나타난 것이기에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명박 정부 하에 시행된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 이후 '다양화'의 명분 아래 '자율형' 사립학교가 그전까지 꾸준히 진행되어 온 교육의 시장화를 본격화 시키며 학부모들을 '소비자'화 해 왔다. 시장화 된 교육의 목표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성적이나 이른바 스펙 등을 전제하는 도구적 학습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인문학적 의미의 성장과 학습을 독려하는 이 부모들의 출현에 대해 교육학계가 담론화 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특히 직업교육과 자기계발 등 도구화된 교육담론을 주도해 왔다는 혐의에서 자유롭지 않은 평생교육학계가 바로 이 부모들에게 주목하고 담론화 함으로써 도구적 교육관과 결별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주제어: 오디세이 학교, 교육의 민관협력, 교육 소비자, 교육 주체, 후기 산업화시대

## I. 문제제기

2014년 7월 1일에 취임한 서울시 조희연 교육감은 20여 년이 넘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이른바 '교실붕괴'에 대한 해결책<sup>1)</sup>을 찾고자 했다. 교실 현장의 상황을 학생들의 목소리를 통해 직접 듣고자 취임 직후 한 달 간 <듣는다, 회연 쌤>이라는, 청소년 친화

\* 본 연구는 서울시 교육청이 발주한 <고교 자유학년제 오디세이학교 참여관찰연구> 결과의 일부임.

† 제1저자: 나윤경(03722,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ynah@yonsei.ac.kr)

1) 교육감의 선거 공약에는 고등학생들에게 방황의 시간을 통해 인생의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1년간의 시간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당선 후 그 공약은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되면서 덴마크의 애프터 스쿨레나 아일랜드의 전환학교와 같은 개념과 접목되어 갔다.

적 제목의 경청 투어를 했다. 이 기획에서 교육감은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의 현실이 ‘질식’ 상태라고 판단, 그들의 숨통을 틔워 줄 대안이 절실함을 알게 된다. 교육감 인수위원회에 참여했던 학교교육 전문가와 대안교육 전문가들이 중심이 되어 대안 마련을 위한 TFT가 그해 10월 꾸려져 논의를 시작했다. 그 결과 <오디세이 학교>가 탄생하였고, 그 기획의 틀은 협치(governance)로서, 공교육의 한계를 민간이 운영해온 대안학교와의 협력으로써 극복하려는 것이었다.

<오디세이 학교>는 서울시 일반 고등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2015년 4월에 모집을 시작, 약 2:1의 경쟁률 속에서 5월에 40명의 학생을 선발하였다. 이들은 2015년 5월 28일의 입학식을 시작으로 7월 중순까지 1학기, 8월 중순까지의 여름방학, 이후 12월 말까지의 약 7개월여의 여정을 지나왔다. 선발된 학생들은 자신의 학교에 적(籍)을 둔 상태로, 공모를 통하여 협력기관으로 선정된 3개의 대안교육 기관인 A(14명), B(14명), C(12명)로 배정되어 1, 2학기를 마치고 원적 학교로 2학년이 되어 복교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이 기획은 그러므로 ‘공교육의 틀’ 안에서 ‘대안교육의 실천’으로 진행되는, 공적 대안교육(public alternative schooling: Cohn and Finch, 1975)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기획의 목표는 공교육의 획일적 입시위주의 암기 학습에서 벗어나 인문학을 토대로 한 토론과 현장경험 중심의 학습을 통해, 학생들이 자아와 꿈을 찾도록 돕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오디세이 학교>의 지향은 ‘교육’을 ‘입시(사)교육’으로 등가화 하는 한국 ‘학’부모의 전환적 시각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 사교육 시장이 그 범위는 물론 영향력에 있어서도 공교육과 대안교육을 압도하는 현재의 상황은<sup>2)</sup> 교육 ‘시장’ 안에서 철저히 소비자화 된 ‘학’부모들의 존재를 의미하는 바, <오디세이 학교>가 추구하려는 ‘다른’ 교육과 학습 실현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전망하게 한다.

2015년 한국 사회의 40, 50대는 목하 자녀의 대입을 위한 본격적인 (사)교육을 통해 신분을 유지, 상승시키려는 데 몰입하고 있다. (손)자녀 대입을 위한 중상층 가족의 개별적이고 도구화된 역할을 희화화한 (수험생) “조부모의 재력, 어머니의 정보력, 아버지의 무관심, 그리고 중국아주머니의 애정”은 더 이상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시장’에서 통용되는 ‘일류대 입시 전략’이다. 이렇듯 여전히 일군의 부모들은 막강한 정보력과 자원을 무기로 자녀들을 점수기계로 만드는 데 헌신한다. 그 과정에서 어떤 아이들은 좌절하거나 자살하고, 어떤 아이들은 승승장구하며 부모는 물론 재력가인 조부모와 집안을 ‘명예롭게’ 한다. 이것은, 언급했듯 중상층의 서사이다. 그러나 교육에 관련한 하위문화가 미미한 한국 사회에서는 사교육 시장이 계층에 상관없이 영향력을 행사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강남 이외 지역의 부모를 불안하게 한

2) 한국에는 초중고교가 1만 84개인데 비해 사설학원은 그보다 16배 많은 16만 2,411개에 달한다. <http://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2780>

다(이민경, 2008). 학교교육의 목표가 대입 '딱 한 개'이므로 그 목표를 이루는 수단과 과정에서 떨어져 있는 '학'부모일수록 불안하거나 무능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부모들보다 영리한 아이들은 어떻게 한다 해도 사교육 세례를 많이 받은 '잘사는' 아이들만큼 그 목표에 다가갈 수 없다는 걸 '간파'(penetration)<sup>3)</sup>(Willis, 2007) 한다. 그러므로 '무능한' 부모나 자신의 능력을 원망하는 대신, 오래 전에 붕괴된 교실에서 오늘도 그냥 잔다.<sup>4)</sup> 이 아이들이 깨어나 방해할까 우려하는 아이들은 특목고, 자사고 등을 '선택'하였으므로, 일반 고등학교는 더욱 잠자는 학생들로 채워진다. 그러나 학교와 교사는 이들이 다른 학생들의 공부에 방해되지 않기만을 바랄 뿐, 이들의 잠을 깨우려 하지 않는다(엄기호, 2013). 따라서 '학'부모들은 더 이상 학교와 교사에게 자녀들의 대입을 맡길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공동육아나 대안학교 등에 관심을 돌린 부모가 아니라면 그 어떤 부모도 사교육 광고가 뿔어대는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일반 학교가 아니라면 과도한 사교육과 대안교육이라는 양극단에서 택일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된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안전망 없는 한국 사회에서 자신의 자녀가 결국 도태되는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오디세이 학교>라는, 공교육 틀 안에서 진행되는 대안교육 실천 속으로 '새로운' 부모 지형의 윤곽이 드러났다. 연구자는 그들을 교육 '소비자'가 아닌 교육 '주체'로 호명하고자 한다. 그들이 현재 한국 교육의 극심한 개인화와 시장화라는 신자유주의적 문법에 순응하기보다, 그것에 저항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더 이상 산업 사회적 경쟁으로는 살아갈 수 없을 만큼 시대적 맥락이 바뀌었음을, 그에 따라 공교육 역시 바뀌어야 함을 정확히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으로서 대안교육이 아닌, 공교육 안에서 자신과 자녀의 '교육적 권리'를 찾고자 하는 적극적인 주체이다. 공교육에 새롭게 등장한 이 교육주체들

3) 폴 윌리스의 '간파' 개념은 그 의미의 행위성에도 불구하고, 영국 도시 노동자의 자녀, 특히 사내아이들을 다시 노동자 계층으로 머물게 하는 아이러니를 만들어낸다. 이 거친 남자아이들은, 예를 들어 아버지가 의사인 집의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과 자기들이 열심히 하는 것이 '다른'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일찍이 '간파'한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공부하는 대신 공부하지 않기로 한다. '셋님'처럼 책상에 앉아 있기보다 노동자인 아버지를 통해서 늘 보아왔던 대로 '싸나이' 노릇을 하며 즐겁게 살기로, 결국 노동자 계층으로 남기로 하는 것이다. 여자아이들의 경우 역시도 힘든 공부를 통해 계층이동을 피하기보다 이 '싸나이'들에게 어필하며 함께 어울리다 일찍 결혼한다. 자기 엄마와 같은 삶의 경로로 들어서는 것이다. 중산층이 되는 길로 가기에는 현재의 즐거움과 보상이 훨씬 크기도 하지만, 그 길이 워낙 불투명하기에 그녀들의 선택 역시도 현실 '간파'에 근거한 것이다.

4) "전북 전주의 한 고등학교 3학년생인 정모(19)군은... "밤에 인강을 제대로 들으려면 학교에선 부족한 잠을 보충하는 게 더 효율적... 교사들은 사교육 강사들도 모자라 이젠 EBS한테까지 밀려났다고 한탄... 한 공립고등학교 교사는 4~5년 전에도 수업을 듣는 학생이 절반 정도였는데, EBS 연계 정책이 시작되고 난 뒤에는 내 수업을 듣는 학생이 거의 없는 것 같다"...("밤에 EBS 인터넷 강의 들을 거예요"...수면실로 변환 고3 교실," 조선일보, 2016. 3. 29).

은 언제나 ‘교육열’이라는 수식어로 불린 한국의 교육 소비자 ‘학’부모를 다른 각도로 조명해야 할 구체적 근거이다. 또한 이 교육주체들에 대한 새로운 조명은, 한국의 제도교육이 수차례의 교육개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입, 암기, 경쟁, 서열화 구도에 머무는 한계에서 벗어나 진정한 개혁을 실행해야 할 이유를 말해 줄 것이다.

특히 평생교육학계가 이들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천세영(2002)이 비판하였듯이, 평생교육학이 지식기반사회 등 신자유주의적 거대담론을 반영하며 학문적 영토 확장을 해 온 정황, 즉 경제로(직업교육으로) 교육(비관적 실천성)을 잠식시키는 상황, “UNESCO가 OECD에 교육의 주도권을 빼앗기는 상황”(295)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왔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이 ‘새로운’ 부모들은 바로 평생교육학이 지금까지 견지해 온 이러한 도구적 교육관에 대해 강한 회의를 품은 존재들이다. 이들에 대한 평생교육학적 의미부여는 바로 “비관적 실천성을 담보한 사회과학으로”서(한승희, 2002:241)의 평생교육의 위치를 재정립하기 위해서이다. 이들의 출현은 다만 당위로서의 비관적 실천성을 갖는 교육주체가 아니라 이러한 주체들이 실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 사례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본 논문은 이 부모들을 평생교육학의 이론이나 당위로서가 아니라 실제로서의 교육주체로 드러내고 의미부여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 II. 교육 ‘소비자’의 구성적 맥락과 교육주체의 등장

‘주입’ ‘암기’ ‘경쟁’ ‘서열화’로 특징지을 수 있는 한국의 대입시 중심의 학교교육이 전환을 맞을 것처럼 보인 적도 있었다. 이른바 ‘87 민주화 이후 본격적으로 펼쳐진 국내 세계화 기류의 영향으로 학생들이 억압, 폭력, 권위의 상징이었던 학교와 교사의 제도적 권위를 무너뜨릴 그 무언가를 좇은 것이다. 90년대 초중반 당시 청소년들을 사로잡은 가수 서태지와 아이들의 노래 <교실 이태아>는 90년대로 접어든 학생들이 학교에서 느끼던 저항감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됐어 이제 됐어 이제 그런 가르침은 됐어. 그걸로 족해 이젠 족해. 매일 아침 7시 30분까지 우릴 조그만 교실로 몰아넣고 전국 9백만의 아이들의 머릿속에 모두 똑같은 것만 집어넣고 있다. 막힌, 딱 막힌, 사방이 막힌 널 그리고 덩싹 모두를 먹어 삼킨, 이젠 지켜온 교실에서 내 젊음을 보내기는 너무 아까워...

청소년들은 당시의 서태지를 '문화 대통령'으로 옹립하였는데, 이는 신선한 뮤지션에 대한 당연한 열광이 아니라, 청소년을 억압해 온 제도교육과 사회에 대한 불만이 폭발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서태지와 아이들이 갖는 문화적 권위 앞에 학교와 교사가 등에 업은 제도적 권위는 힘을 잃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문화로 수렴될 것 같았던 90년대적 상황은 오래 가지 못하였다. 1997년도 경제 위기와 IMF 구제금융 이후, 한국 사회는 대규모 기업 구조조정과 그로인한 고실업, 저성장사회로 진입해 가며 문화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물적 토대를 잠식해갔다. 사회 모든 분야에 대한 투자는 최소화해야 했고, 학교 역시도 획일적 평가기준 아래에서 축소된 투자의 대상이 되기 위해 더욱 경쟁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은 교육 현장의 위기를 더욱 더 심화시켰다(엄기호, 2013). 정부는 '돈'이 드는 교육의 공적 기능을 확대하기보다 학생들의 성적, 교사와 학교의 '스펙'만을 강조하고 '객관적' 평가를 강조하게 되었다(서동진, 2009). 학교 밖의 상황은 더욱 급격히 능률, 능력, 평가, 무한경쟁 등의 개념을 중심으로 변화했다. 한국 사회가 시장원리만을 작동시키며 승자독식과 양극화의 문화를 예외가 아닌 '일상'으로 구축하게 된 것이다(강내희, 1998; 2003).

이른바 신자유주의 경제질서<sup>5)</sup>가 팽배해져가며 각종 규제가 완화되고, 경제대국들의 돈이 그보다 가난한 나라들의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었다. 가난한 나라에 투자된 돈은 그 나라 시민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며 값싼 물건들을 대량으로 생산한다(Froerer and Portisch, 2012). 그렇게 만들어진 '저렴하고 질 좋은' 상품이 다시 국경을 넘어 잘사는 나라로 들어온 결과, 한국에서도 (생산 아닌) 소비주체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처럼 생산과 수출에 치중하며 산업 사회의 전형을 보이던 한국 사회가 소비를 중심으로 한 후기 산업 사회로 바뀌어 갔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교육계에는 1998년 2월, 5.31 교육개혁 조치가 시행됨으로써 자립형 사립학교에게는 등록금책정과 교과운영 자율권이,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학교 선택권이 부여되었다(강영혜 외 2000). 즉 후기 산업사회로의 이행과정과 함께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 신자유주의의 확산은 교육계 안에서 자녀 교육을 위해 가장 좋은 '선택'을 하는 유능한 '소비자'로 '학'부모들을 바꾸어 나간 것이다(Bartlett et al., 2002). 이러한 기초를 유지하면서 정부는 지난 20년 간 교실붕괴를 이해하기 위한 세대적, 시대적 분석 없이 '공교육 정상화'를 외치며 대학입시전형만을 바꾸어 내놓았고, 이러한 정부의 시도들을 비롯, '소

5)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 경제질서, 주체화...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다. 이 글에서의 신자유주의는 '돈'은 자유롭게 국경을 넘고 노동자들은 '돈'에 더욱 예속되는 상황(노동의 유연화)이라고 정의한다. (다국적) 기업들의 국내생산 중지, 노동의 비정규화와 불안정성, 청년실업 등이 이를 보여준다. 또한 국경을 넘어 넘쳐나는 돈은 '투자-생산-상품-유통-소비-투자회수'라는 길고 험난한 과정을 거치기보다 '돈 놓고 돈 먹는' 금융회로를 만들며 산업화(강내희, 2014)되며 수많은 금융상품과 넘쳐나는 금융업계의 대출광고를 만들어낸다.

비자'화 된 학부모들을 상대로 사교육은 바뀐 전형 그 만큼씩 '교육 시장'을 확대해왔다. 사교육 시장 견제를 목표로 내놓은 정부의 기획 EBS 인터넷 강의마저도 '국가과외'(한준상, 2007)로 기능하고, 이제 교사들은 "EBS한테까지 밀려"나는 좌절감을 일상화하며 교실붕괴의 또 다른 지형을 만들게 되었다.

한편 5.31 교육개혁 조치의 내용을 근거로 이명박 정부는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를 합법적으로 가동시킬 수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이것은 국가의 교육 공공성 포기를 합법화했다(성기선, 2011: 조금주, 2012에서 재인용). 정부가 일반고 몇 배의 등록금 지출이 가능한 부모에게만 학교 선택권과 교과운영 자율권을 보장하고, '다른' 부모와 자녀들을 배제시킴으로써 공교육 정상화에 해를 가한 것이다. 특목고와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을 보다 명백하게 표방한 자사고의 설립으로 한국의 일반 고등학교는 이 둘을 '선택'할 수 없는 가난하거나 성적이 저조한 학생들만 가는 곳으로 인식되며 교실붕괴 현상은 물론 교육 양극화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어갔다(엄기호, 2013). 공공적 기능을 축소하는 등 신자유주의적 이념을 탑재한 작은 정부 하에서, 경제적 양극화에 따른 교실 양극화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교실 양극화는 특목고와 자사고 안에서 '점수기계'로 착취당하는 쪽과 일반고의 "수면실"에서 널부러져 지내는 쪽 모두를 희생시켜 왔다.

소비자화 된 학부모들이 '점수기계'를 생산하는 경향은 교육을 지식과 새로운 사유에 대한 창의적 탐구과정이 아니라 단순한 사실의 암기와 그에 대한 객관적 평가로 축소시키는 결과를 더욱 강화해 나간다(Bartlett et al., 2002:6). 시장화 된 교육으로 학생들을 점점 더 시험이나 점수기계로 몰아왔지만 2016년 현재와 이후, 이 점수기계들이 대학 졸업 이후에 갈만한 곳은 한국사회에 많지 않다. 산업화시대의 상징이던 시계추처럼 근면·성실한 대졸자들, 직장 밖에는 모르던 '회사인간'들도 조기 퇴직을 하거나 실직하거나, 비정규직으로 밀려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국 사회는 지금까지 기계적 훈련만을 받아 온 청년들을 희망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시간제 일자리라든 마련해 줘야 하는 사회적 부담으로 여긴다. 그랬기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청년들에게 "눈높이를 낮춰라"고 말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중동으로의 해외구직을 제안하였다.

자녀의 <오디세이 학교> 입학결정을 지지한 부모들은 한국 사회가 더 이상 고성장의 산업사회가 아닌, 고실업 저성장 후기 산업사회로 진입한 이상 자녀들에게 '다른' 교육적 기획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차린 사람들이다. 이들의 대부분은 80년대 중후반에 10대를 보낸 이들과고, 그 때 한국은 두 자리 수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는 전형적인 산업화 시대를 지나고 있었다. 당시의 학교는 그러한 사회에 발맞춰 권위적인 교사의 통제 하에 끝없는 경쟁을 몸에 각인한 산업역군 혹은 인재양성을 위해 학생들을 몰아갔다. 이제 40대 중후반 혹은

50대 초반을 통과하는 이들은 청소년 시절의 그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학생 30의 어머니가 적었듯 현재 “안정적인 삶”을 누리고 있으나, 그렇지 않은 부모(학생 18의 아버지)조차도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성공”인지 성찰적으로 묻고 있다. 이들은 이제 한국 사회가 국가와 사회의 양적 발전을 위한 도구로서의 산업역군보다 “자신의 부족함까지도 사랑”하는 성찰적이며, “스스로 다른 답을 찾아 헤매는” “창의력”과 “비판적 사고능력”을 갖춘 능동적 주체 양성을 위해 새로운 교육내용과 전략, 즉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실천한다.

### III. '새로운' 부모<sup>6)</sup>와 '여전한' 학교교사<sup>7)</sup>

한 때 한 공익광고의 “당신은 부모입니까, 학부모입니까?”라는 질문이 학령기 자녀의 부모들을 성찰하게 하였다. 자녀의 인격적 성장을 돕는 부모인지 아니면 성적향상만을 원하는 '학'부모인지 되돌아보게 하는 질문이었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에서의 부모라면 자녀의 성적향상보다 인격적 성숙을 바라는 건 쉽지 않다. 대부분의 부모는 본 연구의 학생 10 어머니가 보호자 의견서에서 기술하였듯, 인격을 포함한 모든 성장의 과제는 '대입 이후'에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한국은 '부모'보다는 '학'부모를 많이 가진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산업화 시대에서 시계추처럼 일하는 '회사인간'이 되면 “고단”할지언정 어느 정도의 물질적인 삶은 보장되었고, 그 길은 대학졸업장을 가진 자에게 더 넓게 열렸었기에 한국의 부모들은 부모 대신 '학'부모 되기를 택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 한국은 이른바 일류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이 불투명한 후기 산업화시대를 맞고 있다. 대학졸업장만 있으면 '먹고 사는 문제'가 보장됐던 시대가 끝난 것이다.

공부를 잘하던 못하던 대부분의 청년들은 청년실업이 정상(正常)적인 시대에 살고 있고, “아프니까 청춘이다.” 따위의 위로를 받아야 할 만큼 나약한 존재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간파하며 활로는 다른 곳에 있음을 알아차리는 부모들이 있다. 이 부모들은 학생 19의 부모

6) <오디세이 학교> 입학 자녀를 둔 부모들은 40~50대로서, 계층, 학력, 직업 등의 배경은 다양하며 학생들 역시도 계층뿐만 아니라 성적, 입학 동기 등에 있어서 다양하다.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다면 현재 일반고에서 진행되는 대입 중심의 경쟁적 (암기)학습은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이 아님을 알고 있다는 점이다. 이 중 7명의 부모들이 인터뷰에 참여하였고(인터뷰가 낫 시간대에 이루어져 재직 중인 부모들과의 시간이 맞지 않았다), 40명의 부모의견서가 분석되었다.

7) 이 교사들은 <오디세이 학교> 재학생들의 원적학교 교사들로서 학생들의 복교 전 10월에 만나 <오디세이 학교>측이 학생들의 경험과 성장을 보고하는 성격의 간담회에 초대되었다. 두 명의 담당 장학관, <오디세이 학교> 교사들과 22명의 원적학교 교사들이 함께 모였고 이 중 12명의 교사가 인터뷰에 참여하였다.

가 그러하듯, 고등학교 3년 동안의 교육을 “소모적인 입시교육”이라고 말할 만큼 학교교육에 대해서는, 학생 19가 우등생임에도, 부정적이다. 또한 <오디세이 학교>가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명확한 답을 주는 곳이라기보다 수많은 답을 찾아 떠나는 여정(과정)에 대한 기획이라는 것도 이해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 19의 아버지는 입학 지원서의 보호자 의견서에,

지금 한국에서 자녀를 둔 모든 부모들은 오디세이의 불확실한 미래를 택할지 육지에서 정착된 미래를 택할지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라고 적고 있으면서도 <오디세이 학교>를 선택했다. 이처럼 이 “위대한 도전”<sup>8)</sup>에 함께하는 부모들의 ‘다른’ 생각을 입학지원서의 보호자 의견서와 이들과의 인터뷰 내용을 통해서 정리·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이 부모들의 ‘다른’ 생각을 부각시키며 본 논문의 문제의식을 선명하게 드러내고자 <오디세이 학교> 학생들이 2학년이 되어 복교하는 원적학교 담임교사들과의 인터뷰도 보조 자료로서 참고하고자 한다.

...남들의 눈엔 그리 나빠 보이지 않는 소위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발버둥 쳐야 했던 고단함이 마음의 짐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 아이에게만은...친구들과 경쟁하지 않고도 더불어 행복해질 수 있는 삶의 길이 있음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중략) 화려하고 거창한 타인의 목표를 쫓기 보다는, 소박하고 평범할지라도 자신만의 꿈을 소중히 간직하고 키워 나갈 수 있는 당당함을 배웠으면 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끊임없이 증명해내야만 하는 고단함보다는, 자신의 부족함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온전한 삶의 기쁨을 배웠으면 합니다... 주위 사람들과 유쾌한 웃음, 따뜻한 마음 함께 나눌 수 있는 여유를 배웠으면 합니다(학생 30 어머니 의견서).

OO(학생 10)이가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시점에 부모로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OO이 누나를 고등학교에 보낼 때는 (중략) 그저 대학을 갈 수 있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서 보낸 것 같습니다. 둘째인 OO이를 고등학교에 진학시키면서는 멀리 보아야 한다는 뉘눅은 깨달음이 있네요... 일단 대학을 가서 생각해 보는 것으로 고민을 뒤로 미루고 있지만 이것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 아이가 나중에는 더 힘든 시간을 가질 것이라는 것을 이제야 부모로서 깨닫습니다. (중략) 어떤 일을 할 때 가

8) 이 표현은 2015. 5월 28일에 있었던 <오디세이 학교> 입학식에서 조희연 교육감이 참석한 부모와 학생들에게 했던 말이다. 불안하고 불투명한 미래였지만 불굴의 도전 정신 하나로 오디세이가 항해에 임함으로써 결국 고향으로 돌아갔음을 상기시키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습이 뛰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자기와 세상을 위해서 좋은 일인지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중략) 소통과 교류를 통해서 상대방과 자신이 상호작용하여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이해와 깊은 대인관계 경험이 이뤄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학생 10 어머니 의견서).

모두들 대학입시에 사활을 걸고 준비를 한다는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과연, 그게 옳은 일일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중략) 황금 같은 청소년기가 그렇게 힘든 기억으로 남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저희는 대학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길고 긴 인생에서 대학이 갖는 의미가 좀 더 빠른 출발선을 만들어 줄 수도 있겠지만, 빠른 출발이 성공이라 생각하지 않으며 또 빠른 도착이 성공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략) (오디세이 학교에서)... 함께 생각을 나누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벗을 만나기를 바랍니다(학생 18 아버지 의견서).

<오디세이 학교>를 선택한 부모들은 ‘학’부모라고 불리기에는 현재의 학교교육과 그것으로써 이를 성취의 내용에 대한 불신이 크다. 입시 전형과 수행평가 등 평가방식이 다양화되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변화된 사회적 맥락과 그에 따라 학생들의 다양해진 요구와는 무관하다. 현재 학생들과 이들의 부모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학생에 대한 평가방식(수행평가, 내신, 논술 등)의 ‘변화’가 아니라 학습 내용과 과정에 대한 ‘개혁’이다. 왜냐하면 이 부모들은 학교교육 안에서 옆 사람과의 끊임없는 경쟁을 통해 ‘인재’로 선발 혹은 탈락 되어야만 했던 “고단함”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병호(2008)는 경쟁을 통해 가장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는 ‘능력주의’는 그 능력의 범위를 교과 몇 과목에 대한 이해와 암기력에 집중하며 제한적 학습만을 강조하므로 개인의 능력 함양과는 무관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그 역시도 이런 방식의 제한적 능력주의는 산업화시대의 도구적 교육관이나 부응하는 가치로 비판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디세이 학교> 부모들이 소망하는 자녀들의 능력 중 하나는 옆 사람과의 경쟁이 아닌 교감과 교류이다. 상대를 이겨야 느낄 수 있는 상대적인 기쁨보다는, 비록 경쟁에서 지더라도 “자신의 부족함까지도 사랑”하는, “삶의 온전한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다. 경쟁은 배우는 사람의 성장을 위한 과정이 아니라, 고용하고 선발하는 사람의 효율성만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경쟁을 통한 “빠른 출발”과 “빠른 도착”을 지향하는 “고단함”으로 “황금 같은” 시기에 있는 자녀들을 몰아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

40대 중반에서 50대 초반을 통과하는 이 부모들은 삶을 성찰하고 평가하면서 대학졸업장이 ‘절대적’이라는 사회적 통념과도 갈라선다. “고등학교 3년 동안 입시 공부만 하며 지내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성찰하거나, “대학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며 학교교

육에 대한 전환적 인식을 분명히 한다.

담임선생님이 “어머니 <오디세이 학교>가 처음 시작하는 학교라 시행착오도 많을 텐데 이 리스크를 안고 그래도 신청하시겠습니까?”해서 저는 “이 (학교)교육을 계속 받는 게 더 리스크인 거 같습니다.” 라고 딱 말씀을 드렸어요(학생 19 어머니 인터뷰).

이처럼 부모들의 인터뷰는 보호자 의견서의 내용보다 급진적일 경우가 많았다. 예컨대, <오디세이 학교>가 기존의 ‘소비자’ 학부모의 요구에 맞추고자 2학년 복교 후의 내신 성적 대비 차원에서 이른바 ‘주요 교과’인 역사, 수학, 영어 등의 수업을 진행한 것에 대해 부모들은 불만을 표했다. 처음 표방했던 ‘생각하는 힘을 길러 스스로 변화하고 성장하도록 한다.’는 등의 가치관을 강하게 밀고 나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인 것이다. 이들은 인문학과 여행, 직업체험과 현장 인터뷰, 예술과 생태학습, 다양한 문화 활동과 협업 등으로 보냈던 1학기와는 달리 2학기의 교과수업이 포함된 과정을 “어정쩡”한 기획이라 평했다.

제 생각엔 왜 교과를 넣을까? 차라리 <오디세이 학교>만의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 1년 동안은 내신 쪽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자유롭게 진짜 자기 꿈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생각하는 시간을 편하게 줬으면 좋겠는데. 여행도 좀 더 많이 하고... 왜 이렇게 어정쩡하게 가는지 좀 불만이 생기더라구요(학생 32 아버지 인터뷰).

이제 오디세이 프로그램은 오히려 더 래디컬하고 선명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구요. 저는 여행을 더 많이 다녔으면 좋겠어요.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갈 때 협의하고 가고, 놀고, 오는 데까지 자기들이... 결정하는 경험을 하고 보니 애가 짧은 기간에 굉장히 중요한 걸 많이 느꼈던 거 같아요. 그게 저한테 느껴져요. 일반고에서 수학여행 갔으면 그렇게 하지 않으니깐 <오디세이 학교>로서의 그 차이가 더 확실하게 있으면 좋겠더라구요(학생 39 아버지 인터뷰).

(학생 32, 39 부모 의견처럼 <오디세이 학교>가 진행된다면 분명히 2학년에 가서는 학생들이 힘들어 할 텐데 괜찮으신지요: 연구자) 어쩔 수 없는 거죠(인터뷰 참석 부모 7명 일동). 자기가 해야지 모. 1년 동안 이렇게 좋은 경험하고 여행하고 생각하고 호사를 누렸는데, 자기가 내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알아서 공부해야죠. 만약에 불안해하면서도 안한다면 거기에 따른 결과도 자기가 알아서 해야 하는 거죠. 그런 힘을 <오디세이 학교>에서 길렀다고 생각해요 저는(학생 19 아버지 인터뷰).

성인교육학 분야에서 만들어진 '자기 주도적 학습' 개념이 사교육계의 마케팅 개념으로 등장하며 '자습'이라는 의미로 혼용된 지 오래 되었다. 그러나 이 개념은 누군가에 의해 미리 정해진 내용을 스스로 공부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학습의 목표와 내용과 속도까지를 스스로 정하고 구성하여 진행한다(나운경, 2014). <오디세이 학교>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오디세이 학교> 교육을 통하여 자기 주도적 학습의 '힘'을 키웠으므로 복교 이후의 학습과 그에 따른 결과는 모두 자녀들에게 달려 있다고 믿는다. 이 부모들이 의미하는 "힘"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성적이나 학력 같은 양적 결과로서의 힘이 아니다.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며 어떤 방식으로든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힘을 의미한다. 성적 향상이 아닌 변화와 성장을 교육의 결과라고 보는 이 부모들은 <오디세이 학교>에서의 교육의 성과를 양이 아닌 '질'에서 찾는다. 그러므로 겨우 "한걸음" 내딛었을 뿐인 그 경험에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기도 한다.

저희 아이는 나 어떻게 살아야겠다, 구체적으로 어떤 답을 얻었다기보다 '아, 나하고 같은 문제의식을 갖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하고 좀 더 나아졌으면 바라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생각하는 것 같고, 이런 생각만 가지도고 좀 더 안정되고, 어떤 힘을 받는다고 할까요? ... 자신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큰 변화죠...(중략)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냥 한 걸음 내딛은 거 같은 걸 텐데.. 사실 그 한 걸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이들이 처음 기어 다니기 시작하고, 일어나고 걷고 이랬던 과정을 생각하면 한 걸음만 떼면 두 걸음, 세 걸음을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정형화된 삶, 그런 성공 공식이 아니라도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한 번 해보면 어떤 삶의 선택의 순간을 마주했을 때 자기 자신에게 물어 보고 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학생 27 어머니 인터뷰).

또한 이 부모들은 아이들의 논리력과 자신감 같은, 보이지 않는 능력에서의 질적 변화를 감지할 줄 아는 통찰력도 지녔다. 단순히 '말대꾸'라고 할 수 있는 자녀의 일상에서, 또한 시험문제 풀이가 아닌 그 일상의 문제해결 방식에서 아이들의 성장을 보는 것이다.

(제 아이에 대해서) 마냥 생각 없는 애로만.. 너는 뇌가 어디로 갔니...?(웃음) 그랬는데 요즘 말싸움 할 일이 있었는데 그 전에는 제가 백전백승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논리적으로 따지는데 제가 할 말이 딱 없어지더라고요. 애가 좀 컸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여기 <오디세이 학교>를 다니면서 어떤 한 아이 때문에 좀 힘들었어요... 그 전 같았으면 막 울고 못가겠다 그랬을 텐데.. 그래서 엄마가 도와줄까? 했더니 "아냐 엄마 내가 해결해 볼게" 그러더니 어느 날 와서는 "그냥 무시하기로 했어." 그러더라고요. 엄마, 개? 개 짖 아냐..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선을 정하고 딱... 연연해

하지 않는 거 보면서 애가 커가고 있구나.. 생각이 들더라구요.(학생 24 어머니 인터뷰).

자녀들의 성적이 아닌 ‘일상’에서의 변화를 성장으로 의미화 하는 이 부모들은 대부분의 한국 부모들이 십대의 자녀들에게 ‘대학 이후’로 미루라는 외모에 대한 관심마저 긍정적인 자아상의 확립과정, 즉 성장으로 해석한다.

저희 아이는 <오디세이 학교>에 다니면서 거울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애가 생겼나..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무슨 불만이 그렇게 많은지 얼굴 표정이..제 딸인데도 정말 안 예뻐거든요. 요새는 거울을 보고 “엄마 이거 입을까 저거 입을까...” 전 너무 이쁘고 고마운 거예요. 여름 방학 때는 머리염색을 하고 싶대요. 자기를 예쁘게 꾸미고 싶다는 거잖아요. 애 언니하고 저는 요즘 애의 변화에 매일 깜짝깜짝 놀란다니까요. “지금 당장 물들이지 그래?” 그랬더니 좀 더 생각해 본대요(웃음)(학생 12 어머니 인터뷰).

자녀의 대입만을 지향하지 않는 이 부모들은 <오디세이 학교>에 만족하는 그 만큼, 아이들의 복고 이후를 염려한다. 원적학교에서 <오디세이 학교> ‘출신’인 아이들이 제대로 이해받지 못할 것에 대한 불안함이다. 결국 이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학교에 적응하라고 말하는 대신, 변화된 사회에서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는 학교교육에 대해 문제제기 한다.

애들이 여기서 성장하고 다른 삶이 있음을 느끼고 배우고 본교로 돌아갔을 때 애들이 성장한 그 내용을 공교육이...이해하고 받아주지 않으면... 그러기 때문에 애들이 돌아가기 싫어하면 어떡하나(학생 19가 돌아가기 싫어하나요?: 연구자) 싫어한다기보다는 걱정을 많이 해요. 가서 부딪힐 게... 이렇게 창의적으로 자유롭게 공부하다 고2로 갔을 때는 그 갭이 엄청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죠(학생 19 어머니 인터뷰).

학교 얘기를 들어 보면 제가 학교 다닐 때처럼 선생님들이 권위적이고 고압적이고... 대입 위주의 교육이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더라구요. 저도 거쳐 왔지만 입시 치르고 나면 좁은 취업문턱, 결혼, 직장에서의 경쟁...이런 게 매뉴얼처럼 인생에서 놓여져 있고, 아이도 공교육 트랙을 밟다보니 자본주의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느끼고 있고... “어떻게 니가 능력이 있으면 여기서 탈출을 해봐라(일동 웃음)” 그랬죠. 그래서 오디세이에 와서 너무 행복하게 잘 지냈는데.. 다시 또 그 학교로 가야 하는 거잖아요... 답답하죠(학생 27 어머니 인터뷰).

뉴욕 타임즈가 2010년 10월 19일 보도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사적인 대화<sup>9)</sup>에서도 드러나듯 한국 부모들은 자녀들의 교육에 있어 “과하다”(too demanding)고 정평이 나왔다. 학자들 역시도 한국 부모들은 교육열이 과하며 자녀의 신분상승을 위해서라면 공교육과 사교육 가리지 않고 맹목적(preoccupied)(Ahn, 2015)이라고 소개한다. 한국의 학교교사들은 이렇게 과하고 맹목적인 ‘학’부모들의 요구에 부응하며 이들과 호흡을 같이 하는 ‘교사성’(教師性)을 만들어 왔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학교교사들은 과하지 않은, 본 연구에서 ‘교육주체’로 호명하고자 하는 ‘새로운’ 부모들의 교육관에 부합하지 않는다. <오디세이 학교> 학생들이 돌아가야 하는 원적학교 교사들과의 인터뷰 내용은 <오디세이 학교> 학생과 부모들을 걱정시키기에 충분하다.

(<오디세이 학교>에서) 이런 생활(자유로운 생활) 하다가 학교에 와서 적응할 수 있을지가 제일 걱정이지요. 물론 1년 동안 좋았겠지만 다시 돌아오면 경쟁해야 하는데.. 고민되는 게 고1성적이 없는 거잖아요. 대학갈 때 대학에서 어찌 볼 건지.. 여러 문제들을 학교로서는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일반고 교사 J 인터뷰).

인터뷰에 참가한 원적학교 교사들의 관심은 <오디세이 학교> 학생들이 이뤄낸 변화와 성장이 아니라 복교 후 내신과 학교적응이다. 또한 학교교사들에게 ‘자유로운’ 생활이란 부정적인 개념이다. 우선 전반적으로 학생들이 <오디세이 학교> 생활에 만족감을 드러낸다는 사실과 학생들에게 일어난 변화<sup>10)</sup>들을 달가워하지 않는 듯 보였다.

현장에서 공문을 받고 학생에게 소개했고 우리 학생이 지원해서 참여하기는 하는데... 학교입장은 (오디세이 학교에 신청) 하지 말라는 식이었어요. 학생에게 소개했다가 나중에 뒷감당 어찌하게요(일반고 교사 K).

무엇을 근거한 판단인지는 모르겠으나 원적학교 교사들은 <오디세이 학교> 학생들을 문제적으로 보는 것 같다. 그러므로 교사 L과 M은 각각 <오디세이 학교>가 “위험군” 혹은 “대학 안 갈” 학생들에게 적합할 것이라는 선입견을 드러낸다. 그렇다면 현재의 학교는 ‘대학에 갈’ 학생들에게 최적화 된 공간인가. 고등학교 1학년 교과목을 공부하지 않은 데서 오는

9) <http://www.nytimes.com/2010/10/19/opinion/19iht-edduncan.html>

10) 서울시교육청 <고교자유학년제 오디세이학교 참여관찰 연구 보고서> 2015. 12 참고.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학생들의 변화와 성장이 ‘배움에 대한 즐거움,’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 ‘자기 객관화’ 등으로 분류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학습자 중심, 토론 중심, 삶과 연계된 학습 등을 실천하는 <오디세이 학교> 교과과정 덕분에 생겨난 것이다.

어떤 결과가 교육청에게 “책임”을 물을 일이고, 그렇게 “당혹스러운” 일인가. 그만큼 현재 한국의 고등학교 1학년들을 위한 교과과정은 ‘제 때’에 배우지 않는다면 삶의 질을 결정할 그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등등의 질문이 생긴다. 연구자에게 당혹스러운 일은 학기말 즈음 진행된 인터뷰 참여 12명의 교사들 중 <오디세이 학교>에 재학하는 자기 학교 학생을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누거나, 그 학생으로부터 <오디세이 학교>의 교육적 성과를 확인하고자 했던 교사가 단 두 명뿐이었다는 것이다. <오디세이 학교>에 대해 교육청이나 학생에게 질문하는 대신 그들은 새로운 시도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그로인한 편견을 갖고 있었다.

‘위험군’ 애들에게는 오디세이가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애들은 나중에 크게 방황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걸 책임질 수 있는 백업을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일반고 교사 L).

저희는 헛갈린다는 거죠. 겨울방학 중에 학교로 돌아가기 위해 대입 공부 또 시킨다고.. 이걸 담임교사로서는 당혹스러운 거예요. 대학 안 갈 아이들을 보내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갑자기 돌아와서 대학을 간다고 한다면...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안 보냈죠(일반고 교사 M).

처음 홍보할 때, 좀 살고, 공부 못하는 애들, 적응 못하는 애들 보내라고 들었어요. 대학 못가고 중간정도 하는 애들 중에 왔다갔다 하는 애들... 학교에서 전혀 적응 못하는 애들 보낼 수는 없잖아요. 우리 교감은 애들 1명당 예산 2억이라고 하더라구요..(<오디세이 학교> 전체 예산 2억. 학생 한 명당 예산 450만원: 연구자)(일반고 교사 O).

공교육에 새로이 등장한 교육주체로서의 부모들은 학생 19의 아버지가 입학지원서의 보호자 의견서에 적었듯이, “소모적인 입시교육에서 벗어나 다른 길을 택할 수 있는 권리를 원”한다. 이러한 시민적 권리는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오디세이 학교>에) 안 보냈죠.”라는 일반고 교사 M의 말처럼 거부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적어도 본 연구자가 접한 일반학교 교사들은 <오디세이 학교>에 자녀를 보낸 부모들보다 시대를 읽는 감각이나 그에 따른 교육관에 있어서 ‘낙후’되어 보였다. 이들은 그러므로 ‘변화’에 대해 수동적이거나 부정적이다(엄기호, 2013). 아래 인용된 일반고 교사 N의 발언 “(<오디세이 학교>에서의) 6,7개월 만에 아이가 주체가 되겠어요?”는 일반고 교사들이 변화에 대해 수동적이고 부정적일 뿐만 아니라 냉소적임을 보여준다.

(교육청이) 쓸데없는 데 돈을 쓴다... 6,7개월만에 아이가 주체가 되겠어요. 복교를 걱정하고 보충수업을 하는 건 오디세이 교육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안학교라고 생각하고 보낸 건데. 그런 애들이 복교를 생각하면 학교 측에선 두려운 게 당연하죠... 학교 선생님들이 거기에 대해 고민하는 게 당연해요. 무엇보다 담임이 켈 고민이 많죠. 여기(<오디세이 학교>)서 우쭈쭈하다가 다시 보내면 적응 못하는 애들이 분명히 나온다고요(일반고 교사 N).

<오디세이 학교>에 대한 일반 고등학교 교사들의 위와 같은 태도는 관(官에) 대한 깊은 불신을 반영한다. 이는 어쩌면 관이 교사들에게 <오디세이 학교>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하고 설득하지 않았다는 의미일 수 있다. 그러므로 '공문 한 장'으로 "위대한 도전"의 의미와 내용을 전달하려 했던 관의 고질적으로 고압적인 습관 역시도 개선되어야 한다.

교사들과의 인터뷰를 인용한 이유는 현직 교사들과 <오디세이 학교>의 교육주체 부모들과의 시각 차이를 대조하기 위해서이다. 대부분의 학교교사들은 교육주체로서의 부모가 아니라 소비자화 된, 즉 학교를 평가하고 자녀의 성적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학교와 교사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학'부모들에게 익숙해져 있고, 이 부모들의 '비위'를 맞추는 형국이 되어 있다(이수광, 2008). 이러한 상황은 그 누구도 학교교육으로부터 배제되거나 소외되지 말아야 한다는 교육의 '공공성' 실현을 위한 교사와 부모, 그리고 학생간의 호혜적 관계(이수광, 2008)를 요원하게 한다. 그러나 교육주체로서의 부모 역시 소비자 '학'부모에게 익숙해 있는 교사들에게는 호혜적이기보다는 당황스러운 존재이다. 그러므로 공교육 현장에 등장하는 이 새로운 교육주체로서의 부모들을 해석하고 담론화 하고 널리 유포하여 '정상화'(正常化)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들이 특별하거나 유별난 존재가 아니라 후기 산업화시대의 학생들을 준비시키는 데 꼭 필요한 교육주체이기 때문이다. 학교교육 전문가들의 관심은 당연하게도 학생과 교사들에게 있을 것이기 때문에, 평생교육전문가들이 이 교육주체 부모들에 관한 담론생산을 주도해야 한다.

#### IV. '새로운' 교육주체에 대한 평생교육학의 담론화

한국은 官의 공교육, 民의 대안교육, 그리고 市場의 사교육 등 세 지형 안에서 초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교육이 이뤄진다.<sup>11)</sup> 그리고 사교육의 영향력은 공교육과 대안교육의 그것들

11) 공교육은 다시 공립과 사립으로 나뉜다. 개인이 설립과 운영을 해 온 사립은 대안학교를 운영해 온 민과는, 官의 통치와 통제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에서, 차별화 되기에 공교육으로 분류한다.

압도한다. 대안교육이 공교육의 시대착오적 권위의식과 폭압성에 대항하며 민주적 가치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왔다면, 사교육은 공교육의 비효율성<sup>12)</sup>을 비웃듯 시장적 질서를 축으로 확장일로에 있다. 그 과정에서 공교육은 과정을 중시하는 대안교육과 결과를 중심에 두는 사교육과 비교해 그 어떤 우위도 점하지 못한 채 국가공인증서(졸업장)만을 발급하는 기관이 되었다. 설립 취지와는 달리 높은 등록금을 배경으로 온전히 대입 위주의 교과과정만을 가진 변형된 특수목적고등학교와 자율형사립고등학교 등의 출현은 인증서 발급기관으로서의 공교육, 공교육을 포기한 공교육의 모습을 보여주기엔 충분하다. 이러한 특목고와 자사고는 ‘교육은 개인부담’이라는 원칙하에 엄청난 사교육비 부담을 자발적으로 떠안은 중산층 부모의 기획이며, 이를 국가가 허용한(주선한) 결과이다. 본 논문이 주목하는 이 부모들은 교육이 이처럼 시장화 되어 가는 맥락 속에서도 교육에 대한 ‘새로운’ 사유를 노정하며 이러한 맥락을 거슬러가는, 따라서 연구자가 ‘교육주체’로 호명하고자 하는 이들이다.

## 1. 시민적 권리로서의 공교육에 대한 대안적 교육 요구

5.31교육 개혁조치에 따라 1998년 2월 공포, 시행된 ‘특성화 중학교’ 및 ‘특성화 고등학교’ 계획의 핵심은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재단전입금 및 학생납입금 등으로 운영·유지할 수 있는 자립형 사립학교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법적 근거를 한껏 활용한 이명박 정부 시절, 교육계의 ‘선택과 집중’이라는 신자유주의적 테제는 그 안에 ‘배제’의 가능성을 포함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동시에 학교에게 교과과정 운영의 자율권이,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학교 선택권이 주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과 감각이 구성원들에게 인식되었고, 이러한 인식이 특목고와 자사고의 확산을 불렀지만, 그 반대편에 있는 혁신학교의 설립 배경이 되기도 하였다. 즉, 과도한 재정적 부담 없이도 학교 선택권과 교과과정 운영의 자율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혁신적’ 사고가 싹튼 것이다

한편, 제도 밖 공간으로만 여겨졌던 대안학교가 소수이지만 ‘망하지 않고’ 길게는 50여 년<sup>13)</sup>에서 짧게는 십 수 년 간 교육의 공공성을 실천하며 구성원들 사이에서 회자되어 왔다. 최초의 대안학교가 “모두 제 개성에 입각한 일들을 하게 해야 할 것”이라는 교육철학을 중심

12) 공교육의 비효율성이란 학생들의 개인별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학습 내용과 지도 방식을 의미한다. 획일적으로 진행되는 수업 내용은 어떤 학생에게는 너무 쉬워, 또 다른 학생에게는 너무 어려워 지루하다. 그러므로 공부를 잘 하는 학생이라도 학교교육만으로는 현행 대입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어렵다.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 말할 것도 없다. 이런 맥락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교에서의 많은 시간을 책상에 앉드려 지낸다는 것은 학교교육 비효율성의 가장 극명한 예이다.

13) 한국 최초의 대안학교인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는 1958년에 설립되었다.

으로 더불어 살아갈 줄 아는 인재육성을 표방하는 등 대안학교의 대부분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엘리트 중심교육이 아닌 다양한 사람들이 자기의 개성을 발휘하면서도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사는 것을 돕는 '좋은 (세계)시민'을 지향하며, '학교 밖' 청소년들을 성공적으로 만나왔다. 많은 대안학교의 성공은 교육 안에서 아무도 배제되지 않는 교육의 공공적 가치실현의 가능성을 구성원들에게 인식시켜 왔다.

대안학교의 실험이 학교교육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대체로 긍정적으로 인식되어 온 지난 몇 년간의 상황과, '세월호 사건' 이후 한국 사회에 팽배해진 경쟁적 교육 시스템에 대한 성찰은, 2014년 교육감 선거 당시 야권의 단합과 여권의 분열이라는 변수와 더불어 진보교육감들을 탄생시킨 (17개 선거구 중 13개구에서 당선) 배경일 것이다. 실제로 진보교육감들이 내세운 혁신학교의 철학인 공공성, 창의성, 민주성, 역동성, 국제성 등은 많은 대안학교들이 표방해 온 가치이기도 하다. 2009년 경기도에서 처음 시작된 혁신학교는 2014년 현재 경기도 내에서만 초(142개), 중(107개), 고(33개) 282개를 비롯, 서울 67개, 전북 100개 등 전국 578개로 증가되어 왔다. 그럼에도 여전히 초등학교의 경우 혁신학교의 비율은 전국적으로 5%를 약간 상회하고 중학교의 경우도 약 6%, 그리고 고등학교의 경우 3%가 채 안 되는 등 그 규모는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혁신학교 주변의 집값이 인상된다는 등 일부 언론의 분석이 무색하게도 혁신학교의 비율이 한 자리 수에 머무는 이유는 혁신학교에 대한 '전교조 학교'라는 식의 이념적 평가<sup>14)</sup> 이외에도, 여전히 한국 사회에 팽배해 있는 입시교육에 대한 맹신이 한 몫 한다고 할 수 있다.

입시교육에 대한 맹신이 팽배한 사회에서는 대입 이외의 대안적 가치 혹은 진보적 가치를 지향하는 학교는 공교육 기관임에도 '전교조 학교'라는 식의 부정적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공교육 현장에 가시화 된 <오디세이 학교> 부모들은 교육을 통한 대입 이외의 목표 추구가 더 이상 전교조 교사들만의 것이거나, 혁신적 혹은 대안적인 것이 아니라, '일반' 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시민적 권리를 반영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수십 년 전부터 한국 공교육계가 표방해 왔던 '전인 교육'은 이제 민관협력의 공교육 <오디세이 학교> 부모들에 의해 더 이상 피상적 구호가 아니라 교육주체들이 요구하는, 경쟁적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을 반영한 구체화된 교육적 권리이다. 이들은 이 권리를 다만 누리하고자 하는 교육 소비자가 아니라 '요구'하

14) .... "혁신학교에는 편향된 이념교육을 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많을 거라는 선입견도 따라붙고 있다. 관료사회나 보수진영 일각에서 교육과정의 변화와 개혁을 실제 교사들의 노조 성향으로 보려는 시각이 있는 것이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3142216125&code=940401#csidx612e1ae452658dbb4243a212d0defee](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3142216125&code=940401#csidx612e1ae452658dbb4243a212d0defee) (경향신문 2013, 3, 14일자 "성적이 낮다? 전교조 학교?... 혁신학교 쟁점과 오해들")

고 만들어 가는 교육 주체이다.

## 2. 평생교육학과 ‘새로운’ 교육주체

한국에서의 평생학습과 평생교육은 김대중 대통령 집권 시절인 2000년 2월 대통령령으로 제도화됨으로써 인적자원개발의 시대를 주도했다. 당시 평생학습과 평생교육이 자본을 만들어 내기 위한 ‘도구’로서의 기능했다는 것은, 당시 신지식인 1호로 발탁된 한 연예인이 제작한 아동용 영화에 대해 실체도 없는 해외계약을 성사했다며 흑세무민과 같은 선전을 한 것으로도 짐작할 수 있다. 이후 별다른 사회적 의미를 획득하지 못한 신지식인 담론에도 불구하고 서동진(2009)은 신지식인과 같은 인적자원으로 표현되는 모든 자기주도적 주체로서의 학습자 모델은 결국 ‘경제적 주체’로서의 개인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적시했다. 이러한 경향에 대해 천세영(2002:295)은 “경제가 교육을 없애는 상황”이라고 비판한 바 있으며, 이는 ‘자율과 자기주도’라는 새로운 통치성이 자리 잡게 하는 데 평생학습과 평생교육이 ‘동원’되었다는 불편한 진실을 말하려는 것이기도 하다.

21세기 ‘평생학습사회’로 들어서며 한국은 그 몇 해 전에 있었던 IMF 구제금융이라는 치욕적 경험을 뒤로 하고 자기개발 담론, 보편복지에 대한 왜곡 여론, 의료·교육 같은 공공재의 민영화나 자율화 추진 등을 통해 구성원들 각자 ‘스스로’ 쓸모 있는 시민으로 거듭날 것을 촉구했다. 그런 까닭인지 젊은이들은 ‘헬조선’ ‘흙수저’ 등을 외치면서도 기성세대의 “짱돌을 들라”(우석훈, 2011)는 주문에 대해 자신들의 상황을 몰이해하는 처사라고 일축하며, 또 다시 취업준비에 매달리거나 생계유지에 힘쓴다. 이렇듯 한국 사회가 신자유주의의 언명인 자기개발에 몰두해 온 지난 20년 간 개인들은 계발된 자기가 이룬 성과의 열매를 따지는커녕 더욱 더 힘든 상황으로 내몰리는 듯하다. ‘일당 백’의 엘리트에게 자본을 집중 배분하는 신자유주의적 전략으로 피폐해진 나머지 99%의 삶의 전망은 앞으로도 수많은 ‘알파 고’들의 등장 덕분에 더욱 어두워질 것이다.

한 때 마르크스주의적 경제 환원론을 비판하며 인종, 성별, 종교, 문화 등 개인을 구성하는 다양한 범주 간의 복잡한 교차성을 강조한 문화이론자들의 이론이 각광을 받기도 하였지만, 99%의 먹고 사는 문제가 불투명해진 이제는 ‘한물 간’ 마르크스주의를 다시 되돌아봐야 할 때일지도 모른다. ‘붉은 정책’이라 불렸음에도 얼마 전 치러진 스위스의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투표, 경기도 성남시의 일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 실시, 2016년 4·13 총선에서 노동당과 녹색당이 내건 기본소득 도입 공약,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15세 이하 아동에 대한 무상의료법 등은 모든 것이 ‘경제 한 가지로’ 수렴함으로써 양극화 되는 신자유주의적 상

황에 대한 (진보적이랄 것도 없는) 마땅한 대응 행위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조차 소비자화 된 한국 중산층 '학'부모들의 꺼지지 않는 사교육열을 교육계가 인습적으로 과잉된 '교육열'만으로 평가하는 대신, '시대적 감각의 결핍', '반(反) 시대적 전략', '시대 역행적 전략(逆行)' 등으로 담론화해야 하지 않을까. 자신의 자녀를 1%(언저리)로 키워내기 위한 시도는 다만 양극화를 넘어 기계가 사람의 지능을 대체하며 그 1%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 불안하게 할 맥락에서는 당연히 실패할 것이기 때문이다.

<오디세이 학교>의 부모들은 '충만한 시대적 감각' 혹은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의 결과로 극소수가 되기 위해 달렸던 청소년기의 노력이 소모적이라고 말한다.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야 했던 삶의 무게로부터 자녀 세대를 해방시키고자 한다. 이 성찰적인 부모들에게 진정한 삶의 행복은 자신의 부족함까지도 사랑할 줄 아는 인격 구성에서 오는 것이며, 그것은 옆 사람과의 경쟁을 통해서가 아니라 소통과 교감으로 가능하다. 이러한 과정이 십대들에게 줄 수 있는 기성세대의 선물이라고도 믿는다. 본 연구를 통하여 교육주체로 의미화 된 이러한 부모들은 한국 사회에서 다수가 아닐지도 모른다. 다수는 여전히 교육 소비자인 '학'부모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학이 이 '거스르기'를 하고 있는 부모들을 주목하고 조명해야 해야 하는 데에는, 천세영(2002)이 적시했듯, 경제가 교육을 잠식하는 21세기적 상황에서 평생교육학계가 과연 그 상황을 거스르는 저항적 담론 생산에 기여해 왔는가라는 성찰이 자리한다. 이 부모들이야말로 한국 사회가 지금까지 구성해 온 자기계발, 그것을 통한 사회와 국가의 양적 발전을 위한 '도구'로서의 교육관에 균열을 가하고, 자신과 이웃, 그리고 사회의 질적 성장과 변화의 과정을 추동하는 힘으로서의 교육관을 만들어 갈 진정한 주체들은 아닐까.

한국 내에서 근대적 의미의 제도교육이 태동된 일제 식민시기의 교육을 보는 두 관점 '식민지 수탈론'과 '식민지 근대화론'은 한국의 피식민지로서의 경험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논의하는 것처럼 보이나, 자본주의적 발전을 한국 사회가 달성해야 할 지상과업으로 전제한다는 점에서 같은 뿌리를 공유한다(이윤미, 2006). 이 두 시각 중 어떠한 시각을 취하게 되든 식민시기를 거쳐 온 한국의 제도교육이 처음부터 자본주의적 생산체제에 맞는 '도구적'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변화시키지는 못한다. 즉 제도교육은 자본주의적 생산체제에 부합할 생산능력을 갖춘 도구화된 교육관에 근거한다.

그러므로 한국의 '대안' 학교와 그 안에서 진행되는 '대안' 교육은 고병헌(2003)의 지적대로 생산, 성장, 경쟁 중심의 자본주의적 발전관에 따른 교육 도구화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그것이 전제하는 반생태성에 저항하는 교육실천을 지향한다. 제도적 교육을 통해 높은 생산력과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감각과 능력을 체화한 인재들이 사회와 국가의 물질적 성장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자본주의 체제의 도구화된 (평생)교육관은, '신지식인' 담론이 그러하

듯, 철저히 ‘개인’(강내희, 2014)과 그 개인의 성과만을 고려한다. 그러므로 <오디세이 학교>의 협력기관으로 참여하는 대안학교들의 교육실천은 생산, 성장, 경쟁, 생태에 이어 개인화 교육과정의 야기한 문제에 깊이 관여해 왔다. 그러므로 공교육 <오디세이 학교>를 중심으로 이러한 실천을 지지·협력하고 요구하는 새로운 교육주체로서의 부모들이 등장하고 있음을 평생교육학계는 주목하고 담론화해야 한다. 이들은 ‘예외적’ 존재들이 아니라 (사)교육열에 추동되는 ‘학’부모들에게도 또한 경쟁적 한국 사회에게도 대안적 교육과 삶의 방식이 ‘있음’을 경험과 성찰의 결과로써 알려주는 이들이다.

평·생·학·습 개념은 일반고 vs. 특목고/자사고 구도에서 보듯 교육으로 구성원들의 계층이 양극화된 시대에선 더 이상 중립적이지 않다. 평생교육학계는 경제와 경쟁에 잠식되어 버린 교육을 위해서라도 <오디세이 학교> 부모와 같은 교육주체를 불러내고, 담론화 함으로써 경쟁에 최적화 된, 자기계발 도구로서의 교육-학습과 결별해야 한다. 그것은 평생교육학계가 기존의 제도교육에 대해 충분히 성찰적이고 비판적임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므로 평생교육이 도구적 교육관을 실행하는 학교교육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안티테제(한송희, 2002)라는 본래적 정체성에 충실할 수 있는, 어렵지만 꼭 해야 할 학문적 의무이다. 이것은 비판적 실천성을 담보한 사회과학으로서의 평생교육의 위치를 재정립하기 위한 노력이기도 하다.

## 참고문헌

- 고병헌 (2003). 대안교육 운동의 시대적 존재 이유: 대안교육과 평화교육의 만남. **감리교대안 학교모형 탐색 예비 세미나 자료집**.
- 강내희(1998). 대학개혁을 위한 제언 : 교육부의 시장논리가 대학개혁 망친다. **월간사회평론** 98(10). 147-153.
- 강내희(2003). **교육개혁의 학문전략**. 서울: 문화과학사.
- 강내희(2014). **신자유주의 금융화와 문화정치경제**. 서울: 문화과학사.
- 강영혜, 김정래, 성기선(2000).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제도도입방안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나운경(2014). 모성적 생산성과 여성 평생교육: 사회적 모성에 대한 인문학적 상상. **평생교육학연구**. 한국평생교육학회 20(1), 167-187.
- 서동진(2009). **자유의 의지 자기계발의 의지**. 서울: 돌베개.
- 성기선 (2011). 학교 다양화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교육사회학회 (편). 한국교육정책의 교육사회학적 이해 (33-57). 한국교육사회학회 하계학술대회 자료집.
- 엄기호(2013). **교사도 학교가 두렵다: 교사들과 함께 쓴 학교현장의 이야기**. 서울: 다비
- 우석훈(2011). **혁명은 이렇게 조용히: 88만원 세대 새판짜기**. 서울: 레디앙.
- 이민경(2008). 우리시대의 교육열 읽기: 욕망과 불안의 이중주(1장). **교육개혁은 왜 매번 실패하는가**. 서울: 창비.
- 이수광(2008). 제도교육의 그늘과 희망의 조건(3장). **교육개혁은 왜 매번 실패하는가**. 서울: 창비.
- 이윤미 (2006). **한국의 근대와 교육 : 서구적 근대성을 넘어**. 서울: 문음사
- 정병호(2008). 서열경쟁과 교육게임(2장). **교육개혁은 왜 매번 실패하는가**. 서울: 창비.
- 조금주(2012). 학교다양화 정책 속에서 살펴 본 혁신학교의 서와 및 과제. **중등교육연구** 60(2), 중등교육학회 415-439.
- 천세영(2002). 교육인적자원의 의미와 교육제도의 미래. **교육재정·경제연구** 11(1). 289-315.
- 한승희(2002). 평생교육론: 거대담론과의 결별과 학문으로서의 자기 탐색의 계기 만들기. **평생교육학연구**, 8(1). 한국평생교육학회 221-245.
- Willis, P. (김찬호, 김영훈 옮김) (2007). **학교와 계급 재생산: 반학교 문화, 일상, 저항**. 서울: 이매진
- Ahn, J. (2015). Finding a Child's Self: Globalization and the Hybridized Landscape of

- Korea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thropology & Education Quarterly* 46(3), 224-243.
- Bartlett, L. et al. (2002). The Marketization of Education: Public Schools for Private Ends. *Anthropology & Education Quarterly* 33(1), 5-29.
- Cohn, M. R. & M. E. Finch (1975). The Public Alternative High School: Solution to or Reflection of Societal Ills? *Council on Anthropology and Education Quarterly* 6(1), 9-15.
- Froerer, P. & A. Portisch(2012). Introduction to the Special Issue: Learning Livelihoods, and Social Mobility. *Anthropology & Education Quarterly* 43(4), 332-343.

· 논문 접수 2016. 7. 30. / 수정본 접수 11. 4. / 게재 승인 12. 23.

- 나 윤 경: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미국 위스컨신 주립대학교 대학원에서 여성교육을 전공으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음. 최근에는 학교교육 정상화에 관심이 있음. 학령기 자녀를 둔 한국 성인 여성들이 가족과 자녀만을 위한 사적 존재가 아니라 사회적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전제조건이 학교교육의 정상화라고 믿기 때문임. 한국 사회의 도구적 교육관이 전제하는 어머니들의 비가시적 노동과 희생을 막고, 그녀들이 자신과 공동체를 위한 해방적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녀들과 함께 노력하는 중임.

*Abstract*

**From Consumers to Subjects of Education in the Era of  
Bi-polarized Neo-Liberalism**

Nah, Yoonkyeong(Yonsei University)

This article is about Odyssey High School, which was established by the Office of Education-Seoul in cooperation with uncertified alternative schools as an experimental public alternative school in 2015. Forty 1st graders of high schools in Seoul were enrolled with Odyssey School and participated in three cooperating alternative schools for 7 months. Programs provided by these schools include performing arts, film-making, and music in addition to their basic humanity courses such as reading, writing, and dialogues that are aimed to promote critical and reflective ways of thinking. Parents sending their children to Odyssey High School indicate that Korean parents notoriously known for their excessively demanding attitudes toward children's instrumentalized learning as the status quo are changing. The present study is intended to highlight them as subjects of education in comparison with consumers of education. Those parents who have been conspicuously extravagant with marketized education are not simply excessively demanding but are 'backward' in the era of 1% of 'elites' governing the 99% as long as the current system maintains. The goal of becoming part of the 1% is not something achieved but given as evidenced in the popular sarcasm of 'silver-spooned vs. mud-spooned' in Korea. These parents who penetrate the context in which their children are situated and provide them with critical and reflective education within the frame of public alternative schooling, rather than supporting them to be as competitive as the silver-spooned, deserve attention because they are the ones who challenge the conventional way of instrumentalized learning in Korea, with which the academia in Korea has hardly intervened.

\* Key words: Odyssey High School, public alternative school, subjects of education, consumer of education neo-liberalism